

프랑스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와 번역 출판*

- 장-클로드 드크레센조의 한국학을 중심으로 -

강동호**

〈차 례〉

1. 들어가며: 타자로서의 한국문학
2. 프랑스 한국학의 역사와 한국문학 연구의 현황
3. 프랑스에서의 한국문학 번역 출판 현황과 의미 :
1990~2000년대까지
4.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 번역 출판과
장-클로드 드크레센조의 한국학
5. 나가며 : 다시, 타자로서의 한국문학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한국문학 연구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동시대 프랑스 한국학의 현황과 그 가능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성장·발전해 온 한국학의 역사에 있어 한국문학에 대한 프랑스 지식장의 관심은 중요하게 거론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한국문학이 서구에 소개되는 핵심 통로 가운데 하나이자, 한국문학이 글로벌한 층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프랑스 한국문학 교육과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인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정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타 학문 분야에 비해 40년간량 지체된 이유는 문학 교육·연구에 있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언어적 장벽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에서 한국문학이 적극적으로 번역 출판되기 위한 토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해외 한국학자의 노력과 헌신은 거듭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클로드 드크레센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2184)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조 교수의 한국문학 번역과 연구는 특별히 주목될 수 있다. 그는 2010년대 프랑스 내 한국문학 번역·연구를 선도하며, 당대의 해외 한국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드크레센조 교수의 한국학이 번역·출판·교육·연구·기획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프랑스 한국학의 역사의 맥락에서 드크레센조의 한국학이 차지하는 의의를 조명하고, 프랑스라는 타자의 시선에서 오늘날 한국문학의 동시대성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프랑스 한국학,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한국문학, 세계문학, 번역, 동시대성

1. 들어가며: 타자로서의 한국문학

민족주의와 번역불가능성이라는 통념에 반하여, 오늘날의 현대시는 언어들 사이, 발화와 생각들 사이, 그리고 감정들 사이를 유동적으로 누빌 수 있습니다.

- 클로드 무샤르¹⁾

나는 한국소설을 읽을 때 무엇보다 새로운 울림들을 발견해내려는 나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 장 벨맹-노엘²⁾

최근 김혜순 시인이 아시아인 최초이자, 번역 시집 최초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NBCC) 시 부문을 수상하면서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가능성과 그 위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그리핀 문학상 국제부문(캐나다, 2016년), 시카다상(스웨덴, 2021년) 등 저명한 국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혜순이었지만, 이번 수상 소식이 한국문학장에 던지는 의미는 몇 가지 이유에서 더욱 각별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우선 글로벌 문학출판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닌 미국의 최고 권위의 도서상으로부터

1) Claude Mouchard, “L’âme du vent”(바람의 넋), *PO&SIE: Poésie sud-Coréenne*, no.88, Belin, 1999 클로드 무샤르의 서문 ‘바람의 넋’은 오정희 소설가의 동명의 소설에서 차용한 것이다.

2) 장 벨맹-노엘, 『충격과 교감: 한 프랑스 비평가의 한국문학 읽기』, 최애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0, 16쪽.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 49년의 역사 동안 최초의 아시아인 수상자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저자의 번역 작품이 수상작으로 결정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이다.³⁾ 수상작 『Phantom Pain Wings』(New Directons Publishing Corporations, 2023)에 대해 심사위원장 레베카 모건 프랭크(Rebecca Morgan Frank)는 “가부장제와 전쟁 트라우마에서 비롯한 슬픔과 그에 대한 저항이 체화된 놀랍도록 독창적이고 대담한 작품”⁴⁾으로 평가하였는데, 번역상의 여러 어려움이 노정되어 있는 장르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씌어진 시 텍스트에 쏟아진 미국 평단의 이례적인 호평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그간 서구 문학계에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 분단 · 독재 · 민주화 운동 등의 역사적 키워드나 오리엔탈리즘에 기댄 동양적 이미지로 타자화되었던 한국문학이 비로소 문학적 · 문화적 동시대성을 매개로 세계문학과 소통하는 데 성공했음을 입증하는 상징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억해야 할 것은 김혜순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평가가 온전히 개인의 문학적 성취만으로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지하듯 한국문학계는 오랫동안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그 물적 ·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한국의 작가들 역시 세계문학계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기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김혜순 시인의 수상은 그와 같은 해외문학계와 한국문학장 사이의 문학적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전방위적 기획의 결실 가운데 하나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⁵⁾

3) 전미도서비평가협회(NBCC) 시 부문을 수상한 49명 중 46명이 미국 국적의 시인이다. 최초의 비미국인 시인 수상자 아이션 허친슨(Ishion Hutchinson)은 자메이카 태생이지만, 유년 시절부터 영어로 교육을 받아 영어로 작품을 창작해 온 시인이다. 2017년 수상한 레일리 롱 솔저(Layli Long Soldier) 역시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Oglala Lakota)이지만, 미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이중 언어 사용자이다. 김혜순 시인은 사실상 비영어권 시인으로 수상을 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https://www.bookcritics.org/2024/03/21/national-book-critics-circle-announces-winners-for-publishing-year-2023/>

5) 오정희의 『새』가 2003년 독일의 리베라투르상(Liberaturpreis)을 수상한 이래로, 2016년 한강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2018년 편혜영 소설가의 미국의 설리 잭슨상, 2020년 김이름 시인의 전미번역상, 2021년 윤고는 소설가의 대거상 번역추리소설 부문 등 한국 작가들의 주요 국제문학상 수상 소식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다. 최근까지의 한국작가의 주요 국제문학상 수상에 대한 정리로는 박효환,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현황과 전망」, 『한국문예창작』 제54호, 한

물론 해외문학계라는 타자로부터 얻게 된 상징적 인준이 한국문학의 현재적 성취를 가늠하는 절대적 기준일 수는 없다. 그간 노벨문학상에 대한 국내의 맹목적 기대의 폐해와 그 민족주의적 열망의 허상에 대한 자성적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한국문학은 주변 문학을 벗어나야 한다”⁶⁾라는 오래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들였던 인정투쟁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최근 변화하고 있는 한국문학의 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해 보인다. 세계문학의 층위에서 한국문학을 일종의 타자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확보할 때, 비로소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문학적 동시대성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한국문학과 해외문학계 사이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한국문학의 동시대적 보편성이 글로벌한 층위에서 인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했다. 관련하여 1990년대는 동시대 한국문학 텍스트에 대한 번역 환경의 구축과 체계화가 시작된 시기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92년 민간재단인 대산문화재단의 출범, 1996년 한국문학번역금고(한국문학번역원의 전신)의 설립과 더불어 한국문학을 외국어로 번역·소개할 수 있는 환경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했다. 양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 출판의 물적 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작가와 해외작가의 교류, 나아가 차세대 번역 인력의 양성 등의 기획이 더욱 적극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⁷⁾

번역·출판 지원 사업이 발신자(한국)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는 기획이라면, 수신자 차원에서의 물적·제도적 체계화 역시 중요하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번역된 한국문학 텍스트를 자국 독자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고, 그것을

국문예창작학회, 2022.

6)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4쪽.

7)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설립 이후 1990년대 한국문학 번역 지원 사업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는 곽효환, 「한국문학 해외 소개의 현황과 과제: 세계화를 향해 걸어온 긴 여정, 그러나 아직은 먼 길」, 『문예중앙』 2002년 봄호.

본격적인 교육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자체적 역량의 성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한국학의 제도적 성장과 확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⁸⁾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사이의 소통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국문학에 대한 번역과 해외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에 관한 교육·연구 사이의 선순환 구조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해외에서 성장·발전해 온 한국학의 역사에 있어, 더 나아가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프랑스 문학출판계의 관심은 특히 중요하게 언급될 필요가 있다. 1892년 홍종우와 로즈니(J. J. Rosny)에 의해 『춘향전』이 *Le Printemps Parfume*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번역된 이래로, 프랑스는 한국문학이 서구에 소개되는 일종의 주요 관문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한국문학이 글로벌적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프랑스는 현재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현대의 작가들은 자기들의 문학을 불신한다는 카뮈의 선언은, 시는 절대적으로 현대적이어야 한다는 랭보의 말만큼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의 척도이다”⁹⁾라는 김수영의 말이 환기하고 있듯,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변방에 위치했던 시절부터 프랑스는 한국문학의 현대성을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작가들에게 일종의 동시대적 척도이자 문학적 대타자처럼 간주되어 왔다. 세계문학공화국(파스칼 카사노바)의 중심인 프랑스 문학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한국문학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통계치로도 분명히 확인된다. 한국문학 번역에 대한 지원이

8) 오늘날 한국학은 중국학·일본학과 함께 동아시아학의 중심으로 안착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독립적인 물질 토대와 체계를 갖춰가는 중이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교육·연구 대상으로서의 한국(한국학)에 대한 열기로 폭넓게 확산되는 긍정적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 출간된 『해외한국학백서』에서는 서구권 한국학과 처해 있는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다. 반면 2018년 출간된 『해외한국학백서』에서는 해외 한국학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양적 팽창의 흐름이 보고되고 있다. 이은정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가 쓴 「유럽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10명조차 되지 않았던 한국학과 학생 수가 지난 몇 년 사이 갑자기 100명 넘게 증가한 사실을 경이롭게” 느끼고 있으며 “정원 제한이 있는 대학의 경우 합격 커트라인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은 학과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엮음, 『2018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18, 102쪽.

9) 김수영, 「시작노트」(1966),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03, 459쪽.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에 국가별 번역 출판된 작품 수는 프랑스 80종, 미국 37종, 독일 26종, 영국 7종으로 프랑스는 서구권에서 가장 많은 한국문학 번역 텍스트를 생산하는 국가였다. 영어권 번역에 대한 지원이 보다 집중되는 2000년대 이후에도 전반적인 추세는 지속되었다. 2000년대 이후 국가별 번역 출판 현황은 프랑스 428종, 미국 399종, 독일 267종, 영국 112종으로 프랑스는 여전히 한국문학의 국제적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¹⁰⁾ 이처럼 프랑스가 한국문학 번역의 주요 수신처로 간주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프랑스로부터의 문학적 인정이 곧 세계문학으로의 편입을 위한 주요 통로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나아가 프랑스를 경유해 한국문학이 국제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데 프랑스 한국학자들이 보여준 노력과 헌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국에서의 위상은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였다. 세계문학의 강력한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한국문학이 안정적으로 출판되고 연구되기 위해서는 자국의 지식인 네트워크 그룹 등을 포함해 다양한 상징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클로드 드크레센조(Jean-Claude De Crescenzo) 교수의 한국문학 번역과 연구를 위한 헌신과 기여는 특별히 주목될 수 있다. 2003년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프로방스 대학(현 엑스-마르세유 대학)에 처음으로 한국학 전공을 개설한 이래 그는 현재까지 한국문학 번역·연구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며 프랑스 한국학의 또다른 전기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드크레센조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가 번역·출판·교육·학술·기획 등 전방위로 수행되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한국학의 역사의 맥락에서 드크레센조의 한국문학 연구가 차지하는 의의를 조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한국학의 역사의 기원과 현황, 더 나아가 프랑스 내 한국문학 번역·연구의 최근까지

10)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통계 자료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수집·정리한 한국문학 번역본 출판 도서 데이터베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되는 『문예연감』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기관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출판 목록을 비교 대조하여 그 오류를 바로 잡았고, 장르 현황 및 원작의 출판년도 등의 통계치는 필자에 의해 보충되었음을 밝힌다.

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프랑스라는 타자의 시선에서 오늘날 한국 문학의 동시대성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¹¹⁾

2. 프랑스 한국학의 역사와 한국문학 연구의 현황

한국에 대한 프랑스 지식계의 관심은 19세기 말부터 발견되지만, 사실상 한국학이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한국학계에서는 소르본 대학교의 샤를 아그노엘(Charles Haguenauer, 1896~1976) 교수의 초청으로 이옥(Li Ogg, 1928~2001) 교수가 한국어 강의를 한 1956년을 프랑스 한국학의 원년으로 간주하고 있다.¹²⁾ 여타의 해외 한국학이 그러했듯 프랑스 한국학 역시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반세기 정도 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학문적 후발주자라는 주변부적 위치는 한국학의 발전과 제도적 안착이 소수의 학자들의 헌신과 열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배경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초기 프랑스 한국학의 주요 전공 분야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소수 학자들의 개인적 관심과 학문적 이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원인이기도 했다.

초창기 프랑스 한국학은 1세대 한국학자인 샤를 아그노엘(Charles Haguenauer)의 언어학과 한국어사, 이옥¹³⁾의 고대사 연구를 중심으로 이

11) 현재까지 프랑스 한국학 및 한국문학 연구에 관한 참조할 만한 국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오정숙, 「프랑스에서 한국문학의 수용과 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프랑스학연구』 29집, 프랑스학회, 2004; 조태린, 「국의 한국학 관련 커리큘럼 분석 - 프랑스 주요 대학의 한국학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3집, 동방학회, 2013; 정은진, 「한국소설의 프랑스 수용의 문제: 소설의 장·단편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80호, 한국비교문학회, 2020; 이장규, 「프랑스 내 한국학 현황과 독립운동사 연구의 활성화 방안」, 『한국근현대사연구』 105집, 2023; 임은실, 「사회인류학의 눈으로 본 프랑스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 『프랑스학연구』 102집, 프랑스학회, 2023.

12) 이진명, “Etudes coréennes en France : les origines, le passé et le présent”. 이 글은 2013년 11월 7~8일 파리의 루테티아 호텔(hôtel Lutetia)에서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열린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 영토 문제와 지도 제작에 관한 한-불 국제 세미나’(Actes du Séminaire international coréano-francophone sur la situation géopolitique en Asie de l’Est, les problèmes territoriaux et la cartographie)의 논문집에 게재된 글이다.

13) 이옥 교수는 해방 후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인(1896~1979)의 아들로 한국 고대사 전공 한국학자이다.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국립중앙언어문화대학(INALCO) 강사를 거친 후 파리 7

루어졌으며, 1965년 마르크 오랑주(Marc Orange)¹⁴⁾ 1972년 다니엘 부셰(Daniel Bouchez)¹⁵⁾ 등의 한국학자들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에서 활동하게 됨으로써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닦게 된다. 당시 1세대 한국학자들은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저작들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한국전쟁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극히 빈약했던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 전반에 대해 소개해야 했던 당대의 지적인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한편 1970년대부터 프랑스 한국학은 보다 체계화되고 다양한 기관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시기를 맞게 된다. 1968년 프랑스 내 대학 제도의 개혁에 따른 대학 및 학과 체제 개편으로 인해 한국학 전공이 동아시아학과 등에 개설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연구 분야의 다양성이 확보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알렉상드르 기예모즈¹⁶⁾(Alexandre Guillemoz)의 인류학, 이진명¹⁷⁾의 역사학, 앙드레 파브르

대학 한국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1973년부터 1992년까지 콜레주 드 프랑스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프랑스 한국학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1977년에는 유럽한국학회(AKSE)의 창립 멤버로서 한국학의 유럽 내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 14) 마르크 오랑주(1937~2023) 교수는 1세대 프랑스 한국학자로 파리 7대학의 한국학 교수와 연구부총장을 역임하고 1992~2002년에는 이옥 교수에 이어 콜레주 드 프랑스의 한국학연구소장으로 활동했다. 소르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오랑주 교수는 국립중앙언어문화대학에서 이옥 교수에게 사사했으며, 1964년 최초로 한국어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다. 1971년부터 2002년까지 국립학술연구원(CNRS)에서 한국학을 가르쳤다. 그가 1980년에 번역 출판한 단편소설집, 『Une femme à la recherche d'une illusion(환영을 찾는 여인)』(EIBEL / FALNAC, 1980)에는 소설가 이정호, 이병주, 김원일, 김문수, 조정래, 황석영의 작품이 실려 있다.

- 15) 다니엘 부셰(1928~2014) 교수는 1세대 프랑스 한국학자로 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파리 카톨릭 대학에서 신학 석사를 그리고 1975년 파리 7대학에서 동아시아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의 가톨릭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이후 1978년부터 국립학술연구원(CNRS)에서 활동하였고, 1986~1988년에는 유럽한국학회(AKSE)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다니엘 부셰 교수는 한국학의 기원으로서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를 연구하였고, 『구운몽』을 비롯한 한국고전 문학에 대한 연구는 국내 학계에도 소개되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의 연구에 대한 국내의 논평으로는 조동일, “Daniel Bouchez, Tradition, traduction et interpretation d'un roman coreen-le Namjongki”, 『국어국문학』, 94호, 국어국문학회, 1985. 정규복, “다니엘 부셰의 「구운몽」 저작언어 변증」 비판”, 『한국학보』 18권 4호, 일지사, 1992.

- 16) 알렉상드르 기예모즈(1941~2021) 교수는 1세대 프랑스 한국학자로 민속학 연구자이다.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소(EHESS)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한국학연구소장 및 한국학과장(1994~2006), 프랑스 한국학회 회장(2001~2005), 유럽한국학회 회장(2003~2007) 등을 역임하였다.

- 17) 이진명(1946~2023) 교수는 1세대 프랑스 한국학자로 역사학 연구자이다.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1971년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도불했다.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리옹

(André Fabre) 교수를 중심으로 한 언어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건축학 (Francis Macouin), 정치학(Bertrand Chung), 경제학(Jean-Raphaël Chaponnière, Marc Lautier) 연구 등이 있다.

프랑스 한국학은 1세대 한국학자들의 은퇴와 더불어 1980년대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국립동양어대학교(INALCO), 파리 7대학, 사회과학고등연구원(L'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이하 EHESS)에서 교육을 받은 새로운 학문 후속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2~3세대 한국학자들에 의해 한국학의 분야와 범위에 있어 심화와 확장의 궤도에 올라서는데. 역사학과 인류학 분야에서는 알랭 델리생(Alain Delissen), 에블린 쉐렐(Évelyne Chérel)의 현대사, 야닉 브루네통(Yannick Bruneton), 김대열(Kim Daeyeol)의 고대사 그리고 미술사의 엘리자베스 샤바놀(Élisabeth Chabanol)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시에 인류학 및 민족지학적 방법은 나탈리 루카(Nathalie Luca)의 종교학, 그리고 발레리 쉴레조(Valérie Gelézeau)의 지리학 등으로 확장되기에 이른다.¹⁸⁾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프랑스 한국학은 현재까지 제도적인 기반과 체계적 연구 시스템을 구비해 나가는 중이다. 현재 석사 과정 이상의 교육 과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정식 한국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총 6개에 이르며, 그 외에도 한국어학 관련 교육이 정식 커리큘럼으로 시행되는 대학 및 기관은 14개에 달한다.¹⁹⁾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은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는 전문 연구 중심 기관으로서 역사학, 지리학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술한 한국학의 점진적인 체계화 과정에 비추어볼 때 프랑스 내 한국문

3대학교 한국학과에 제직하였다.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동해 명칭에 대한 역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8) 이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는 2019년에 발행된 프랑스 한국학 백서 Livre blanc des études coréennes en France(Réseau des Études sur la Corée, 2019)에 수록된 Florence Galmiche, "Méthodes et thèmes de recherche dans les études coréennes en France : une diversification qui se poursuit?"(프랑스 한국학의 연구방법과 주제 : 다양성은 계속되는가?), 25~27쪽 참조.

19) 파리에선 파리 시테 대학교(구 파리 7대학), 국립동양어대학교(INALCO)가, 지방에는 라로셀 대학교, 리옹 3대학교, 엑스-마르세유 대학교가 있는데, 이중 한국학 박사를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은 파리 시테 대학, 국립동양어대학, 엑스-마르세유 대학이다.

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성장이 더딘 편이었다. 프랑스 내 주요 한국학과와 한국문학 전임 교수 현황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프랑스 한국학의 규모가 가장 큰 파리 7대학(현 파리 시테 대학)에는 한국문학 전공 교수가 아직까지 없으며, 프랑스 한국학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국립동양어대학의 동아시아학과와 경우에도 2000년대까지 정교수로 재직하였던 파트릭 모뤼스(Patrick Maurus) 교수 이후에는 박사 논문을 지도할 수 있는 문학 분야 정교수가 없다. 그나마 2006년 임용된 정은진 부교수(maître de conférences)만이 전문적인 한국문학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전임직 교수였다.²⁰⁾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직 교수의 전공도 한국사, 언어학, 지리학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의 한국학이 한국어학과 역사학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프랑스 내 한국문학 연구의 실상을 살펴보는 데 한국문학 연구 관련 출간 목록 및 박사 학위 논문 출판 현황은 좋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 한국문학 전문 연구자의 부족은 한국문학 관련 전문 학술서 출판의 약세로도 나타나는데,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문학연구 관련 단행본 출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저자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Jean-Claude De Crescenzo	Promenades dans la littérature coréenne	Decrescenzo éditeurs	2023
Jean-Claude De Crescenzo	Écrits de l'intérieur: le monde littéraire de Lee Seung-u	Decrescenzo éditeurs	2022
Berthelie Benoît	La place de la littérature : fictions nationales et cultures politiques dans les Corées libérées (1945-1950)	Collège de France, Institut d'études coréennes	2022

20) 정은진 교수는 2000년대부터 한국문학 번역자로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한국현대문학 작품을 번역하였다. 오정희의 『불망비』(필립 피키에, 2004), 『새』(최이유, 2005), 『중국인 거리』(세르쥬 사프랑, 2014), 신경숙의 『외딴방』(필립 피키에, 2008), 『리진』(필립 피키에, 2010), 『엄마를 부탁해』(프랑스 르와지르, 2010), 한강의 『채식주의자』(르 리브르 포세, 2016),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윌마, 2005), 『개밥바라기 별』(세르쥬 사프랑, 2015)이 대표적인 업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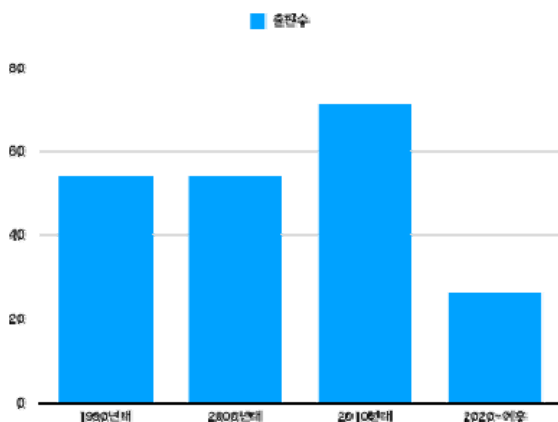
이남호 외	Introduction à la littérature coréenne du XXe siècle	Imago	2016
정명교 외	Un désir de littérature coréenne : essai	Decrescenzo éditeurs	2015
Antoine Coppola	Ciné-voyage en Corée du Nord : l'expérience du film "Moranbong"	Atelier des Cahiers	2012
Yves Millet 외	Poésie & paysage : rencontre franco-coréenne	Atelier des cahiers	2009
Patrick Maurus	Histoire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Ellipses	2005
Cho, Tong-il, Daniel Bouchez	Histoire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 des origines à 1919	Fayard	2002
Patrick Maurus, 최윤	La littérature coréenne devant le modernisme et le colonialisme ou L'ère des revues	l'Harmattan	2000
김우창	Introduction à la littérature coréenne du XXe siècle	Imago	1998
Patrick Maurus	La mutation de la poésie coréenne moderne ou les onomatopées fondatrices	l'Harmattan	1999

학술서 출판 목록 가운데 프랑스의 한국문학 연구자에 의해 씌어진 것은 파트릭 모리스의 3종,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2종, 앙트완 코폴라 1종, 베르텔리에 브느와의 1종에 불과하며, 그 외의 저서들은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 문학 관련 비평 또는 연구서의 불역판에 해당한다. 개별 학술서의 학문적 성취와 별개로, 이와 같은 양적인 차원에서의 빈약함은 프랑스 한국학 내 한국 문학 연구가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술 연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박사 학위 논문 출판 현황은 어떨까? 한국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박사 학위 논문 현황을 전체적으로 개괄해보면,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양적인 차원에서 한국 관련 박사 학위 논문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분야별 박사 학위 논문 수와 년도별 박사 학위 수여 숫자 등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²¹⁾

21)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박사 학위 논문 관련 데이터는 프랑스의 고등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에서 구축한 디지털 오픈 플랫폼(<https://theses.>

분야	한국어 문학	사회학	법학	비교 문학	역사학	프랑스어 교육	미디어	영화	기타
논문수	134	18	9	9	9	9	5	4	12



분야	논문수
한국어학	101
한국어교육	17
현대문학	14
고전문학	2

프랑스 학계에서 생산한 한국 관련 박사 학위 논문의 양적인 증가는 그 자체로 프랑스 내 한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증가 추세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논문 주제와 분야에 있어 한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학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현대문학 분야 박사 학위 논문은 14개로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현대문학 분야 박사 학위 논문의 출판이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프랑스 내 한국현대문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며, 향후 프랑스 내 한국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예

fr/)에 등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1985년부터 프랑스 내에서 출판된 거의 대부분의 박사 학위 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통계치를 작성하기 위해 한국 관련 주요 연구 핵심어를 중심으로 유관 논문들을 추출하고, 제목과 초록과의 대조를 진행하였다. 검색과 논문 초록을 중심으로 작성된 자료이다보니 다소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측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다음은 최근까지 출판된 한국현대문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 목록이다.

저자	논문 제목	출판 년도	학위 수여 대학
Laurie Galli-Ragueneau	Ecrire l'abattement moral dans la littérature contemporaine sud-coréenne : les années 2000 et 2010	2021	Aix-Marseille
	한국 현대 문학에서 나타난 도덕적 타락에 대한 연구 : 2000~2010년의 작품을 중심으로		
Lucie Angheben	Les « jeunes auteurs » coréens nés dans les années 1980-1990 : traduire la solitude et le silence : sur les oeuvres de Jeong Yong-jun, Han Yu-joo, Choi Jin-yeong, Yoon Go-eun et Park Sol-moe	2019	Aix-Marseille
	한국의 젊은 작가들(1980년대 생) : 외로움과 침묵의 번역 - 정용준, 한유주, 최진영, 윤고은, 박솔피의 작품을 중심으로		
Aki Yoshida	La littérature des Coréens du Japon : la construction d'une nouvelle identité littéraire, sa réalisation et sa remise en cause	2018	Sorbonne Paris Cité
	재일 조선인의 문학 : 새로운 문학적 정체성의 구축		
Benoît Berthelie	La place de la littérature : Politique du discours littéraire dans les Corées libérées (1945-1950)	2017	Sorbonne Paris Cité
	문학의 장소 : 해방기(1945-1950) 한국의 문학 담론과 정치		
Park Sunghyun	Ko Un, la poésie et l'histoire en Corée du Sud : le monde de Maninbo (Dix mille vies)	2015	Paris, EHESS
	고은, 한국의 시와 역사 : 만인보의 세계		
Lim Jae-Il	L' esthétique théâtrale du Minjok-guk (théâtre populaire coréen) en résonance avec l'esthétique de Brecht	2011	Paris 8
	민속극(대중극)의 미학과 브레히트 미학의 관계 연구		
Le Min Sook	Source créative et construction narrative dans les nouvelles de Kim Dong-ri (1913-1995)	2010	Paris 7
	김동리 단편 소설의 창작 원리와 서사 구조		
Kim Young-eun	L'héritage des formes traditionnelles dans le théâtre contemporain coréen	2008	Aix-Marseille
	현대 한국 연극의 전통적 형식과 그 유산		

Kim Simon	Une éthique de la création : Une étude sur les nouvelles de Kim Tong-in	2005	Paris 7
	창작의 윤리 : 김동인 단편 소설 연구		
Ko Jong-Hwan	Étude comparative entre le théâtre français de la résistance sous l'occupation allemande et le théâtre coréen sous l'occupation japonaise	2005	Paris 12
	점령기 프랑스 연극과 일제강점기 한국 연극의 비교 연구		
Catherine Rapin	L'invisible et le théâtre coreen de ch'oe in-hun	1999	Paris 7
	비가시적인 것, 최인훈의 희곡		
Jang Insook	Le theatre coreen contemporain et ses sources : etude ethnoscenologique	1996	Paris 8
	한국 현대 연극과 그 기원 : 민족지학적 연구		
Patrick Maurus	Nationalismes et modernités : la mutation de la poésie coréenne moderne, 1894-1908-1927 : recherches sociocritiques	1994	Paris 7
	민족주의와 근대성 : 한국 근대시의 변이, 1895-1908-1927 : 사회 비평적 연구		
Kim Seungmi	Le chamanisme et le théâtre coréen	1993	Paris 7
	샤머니즘과 한국연극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현대문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1990년대에 4개, 2000년대에 3개, 2010년대 이후 7개로 조금씩이나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엑스-마르세유 대학에서 최근 출판된 박사 학위 논문 2 편의 연구 대상과 주제는 주목을 요한다. 루시 앙게방(Lucie Angheben)과 로리 갈리-라게누(Laurie Galli-Ragueneau)의 박사 논문은 공통적으로 2000년대 이후 활동을 시작한 한국 소설가들(정용준, 한유주, 최진영, 윤고은, 박솔뫼 등)의 작품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기존의 학위 논문들이 1990년대 이전의 한국 정전에 해당하는 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라는 점과 비교할 때, 해당 논문들은 한국문학에 대한 동시대적 접근이 비로소 대두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같은 맥락에서 두 학위 논문 모두 엑스-마르세유 대학에서 출판되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03년 시작된 엑스-마르세유 대학의 한국학 전공은 프

랑스 한국학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곳으로서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 동시대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프랑스 한국학의 새로운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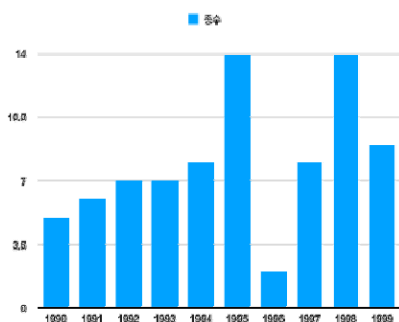
이처럼 프랑스 한국문학 교육과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인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제도 안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정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타 학문 분야에 비해 40년가량 지체된 이유는 문학 교육·연구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언어적 장벽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해외 한국학계에서 한국문학 관련 교육·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이 충분히 선행됨으로써 연구의 물질 토대와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외 한국문학연구는 사실상 한국문학 텍스트에 대한 번역으로부터 출발하며, 한국문학의 역사를 새롭게 분석·해석할 수 있는 비교 연구적 지평을 확보할 때 비로소 정립될 수 있다. 이것은 한국문학 번역과 한국문학 교육·연구의 사이의 선순환 구조가 정립될 때,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사이의 소통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프랑스 내 한국문학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이다.

3. 프랑스에서의 한국문학 번역 출판 현황과 의미 : 1990~2000년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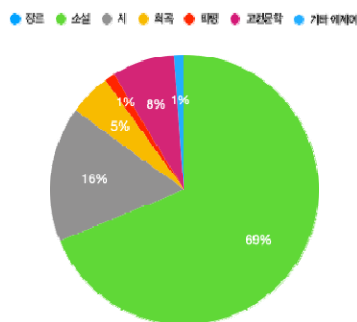
1) 1990년대 한국문학 번역 출판 현황 분석

서두에서 언급했듯 한국문학번역은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1990년대부터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이 13종에 불과했던 반면, 1990년대에는

80종으로 눈에 띄는 증가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은 한국문학 번역에 대한 두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었다. 1990년대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한국문학 번역 출판의 년도별, 장르별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치는 다음과 같다.²²⁾



<1990년대 년도별 출판 종수>



<1990년대 장르별 출판 비중>

위 통계에 따르면 1996년을 제외하고는 번역 출판 종수의 완만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설 장르에 대한 비중(총 55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징적인 것은 당시 번역 출판 기획이 소수의 출판사들에 편중되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한국문학 번역 출판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출판사는 악트 쉬드(Actes Sud), 아르마탕(L'Harmattan) 필립 피키에(Philippe Picquier) 등으로 10년 간 번역된 총 80종의 60%에 가까운 47종의 작품을 출판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다.²³⁾

1990년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한국 작가로는 이문열 8종, 조정래 5종, 황순원 4종, 박경리 3종으로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정전 격

22)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한국문학 번역 통계 자료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수집·정리한 한국문학 번역본 출판 도서 데이터베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되는 『문예연감』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데이터를 가공하는 단계에서 '문학'에 해당하지 않는 수필, 에세이 등의 도서는 제외하였으며, 장르 등의 세부 항목은 필자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작성되었다.

23) 이 가운데 악트 쉬드에서 기획한 한국문학총서에 대한 연구로는 장준영·서세립, 「악트 쉬드(Actes Sud) 한국어 문학 총서 발간의 의미: 제도적 번역 지원과 출판사 총괄 기획의 효과」, 『다문화콘텐츠연구』 43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3, 정우경·이가은, 「한국문학 프랑스어 번역출판 연구(1) - 악트 쉬드(Actes Sud) '한국문학총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71집, 상허학회 2024.

작품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이문열에 대한 집중적 소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이문열의 번역 작품은 모두 악트 쉬드 한국문학총서 시리즈를 통해 프랑스 출판계에 소개되었는데, 해당 총서는 최현무(소설가 최윤)와 파트릭 모뤼스(Patrick Maurus)가 공동으로 기획·번역한 작업물로 프랑스 문학계에 한국문학을 알리기 위한 기획 의도가 전면화 되어 있는 시리즈이다. 당시 이문열은 한국문학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선두주자로서 선택되었는데, 이러한 선택은 한국문학이 낯설었던 프랑스 출판 시장에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데 있어 당대의 문학적 아이콘인 이문열이 적합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였다.²⁴⁾ 이문열의 작품에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사와 유교적 세계관, 그리고 작가 특유의 교양주의적 태도가 프랑스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어느 정도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당시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는 이문열의 번역 작품에 대한 이례적인 관심을 보였는데, 번역자인 최윤의 인터뷰가 함께 실린 당시 기사를 통해서도 한국문학이라는 낯선 타자를 대하는 프랑스 독자들의 기대 지평이 무엇이었을지가 어렵지 않게 유추될 수 있다.

한국현대문학은 내전으로 인한 국가적 비극에 시달리고, 시민들의 육체와 정신을 고문하는 권위주의적 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다. 때문에 한국현대문학은 일종의 선악의 이분법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며, 명확하게 선의 편에 서 있는 상처받은 영웅들만 존재할 수 있었다. 1948년생인 이문열은 한국의 현대 작가로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인기 있는 작가이다. 이문열은 한국문화에 깊이 착근해 있으면서도 그들의 시대를 예민하게 반영하는 작가들을 대표한

24) 이문열의 작품을 번역 텍스트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문학적 평가보다 프랑스 독자 층에서의 예상되는 수요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은 번역자 파트릭 모뤼스의 여러 기술들이다. 이를테면 그는 이문열의 단편소설집 『익명의 섬』을 번역한 『L'île anonyme』(악트 쉬드, 2003) 역자 서문에서 “이문열은 글쓰기가 현실을 표현하고 바로잡아나가며 독자를 위한 학습과 개혁의 장이라는 유교적인 글쓰기 실천을 하고 있으나 작가 자신이 현실주의의 틀에 갇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작가적 영감은 고갈돼 버린 것 같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한 논란으로는 “이문열 단편집 번역자가 ‘원작자 비판’ 과장”, 『경향신문』, 2003년 11월 13일.

다. (중략) 번역자인 최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문열이 제기하는 질문은 단순 명료하다. 한국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독재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²⁵⁾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전쟁, 분단, 독재 등은 한국에 대한 프랑스 독자들의 선이해를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에 해당한다. <르 몽드>는 한국현대문학이 비극적 한국현대사가 낳은 정치적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하는 가운데 이문열의 작품을 그와 같은 정치적 선악의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난 이례적인 사례로 소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열의 작품이 보여주는 독자적인 작품성이 우선시 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Notre héros défiguré, 악트 쉬드, 1990)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독재’를 언급한 번역자 최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의미심장한데, 그것은 한국문학이 프랑스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한국현대사가 주된 관심과 흥미의 요소로 작용해야 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문열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의 역사 및 전통과의 관련성은 1990년대 한국문학 번역 작품 선정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프랑스 출판계에게 한국문학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개별 작품의 문학적 성취와 한국 전반에 대한 관심이 쉽게 구분되기 어려웠음을 시사한다. 1995년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간지 <리베라시옹>에 실린 리뷰 기사에서도 유사한 뉘앙스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황순원 컬렉션을 읽기 위해 당신이 한국에 대해 미리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이 위대한 거장의 이야기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현대 문학이 무수히 많은 역사적 굴곡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승옥과 같은 개인주의자는 예외이다). “아름다운 이방인들” 출판을 위해 오늘날 프랑스에 소개된 13명의 작가들은 (중략) 한국의 민족적 트라우마에 대한 증언을 시도

25) “Cris de Corée Loin du manichéisme, voici, avec Yi Munyol et un recueil de nouvelles, une littérature de l'ambivalence des âmes”(이분법에서 멀어진 한국의 울음. 영혼의 모호성을 보여주는 이문열의 단편집), 《Le Monde》, 1990년 11월 16일.

한다 : 1950~1953년의 내전, 남북 분단, 박정희 장군의 독재 정권 시기(1961~1979), 광주에서의 학생 학살(1980)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가 야기한 폐해들이 다.²⁶⁾

윗글은 프랑스국립도서센터(Centre National du Livre)의 기획 하에 출판된 한국문학 선집 『Les Belles Etrangères-13 écrivains coréens』(아름다운 이방인들-13인의 한국 작가들, 1995)²⁷⁾에 대한 서평 기사이다. 최인훈, 조세희, 김원일, 윤홍길, 김승옥, 고은, 신경림 등 해방 이후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13인의 작품을 선별해 묶은 위 책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듯, 당시 독자들이나 출판계가 한국문학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Matin calme) 한국에 대한 개괄적이면서도 단순한 인상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작품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문학적 가치보다, 한국전쟁 · 분단 · 독재 · 광주민주화 운동 등의 한국현대사에 더 많은 방점이 찍혀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것은 당시 한국문학이 비극적 현대사가 야기한 ‘민족적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일종의 문학적 증언으로 수용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1990년대에 수행된 한국문학 번역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개괄적 소개의 층위에서 수용되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세계문학이라는 지평에서 한국문학 텍스트에 대한 향유와 평가가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그것은 세계문학의 지평에서 낮은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던 한국문학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울러 그것은 초기 한국문학 번역이 프랑스 문학계 · 출판계의 자발적인 요구와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발신자(한국문학계) 주도의 수출형

26) Claire Devarrieux, “L'hirondelle du Matin calme”(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제비), 《Libération》, 1995년 11월 30일.

27) 이 책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한불문학 포럼을 위해 출간된 것으로 프랑스국립도서센터와 주한프랑스문화원의 지원을 받았다. 해당 행사와 출판에 참여한 작가는 소설가로는 김원일, 박완서, 오정희, 이균영, 이문열, 윤홍길, 조세희, 최인훈, 최윤, 한말숙, 시인으로는 고은, 신경림, 황동규이다.

기획 사업에 가까웠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시 한국문학 번역은 프랑스 출판계의 자체적인 필요와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한국에서의 지원에 철저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으며²⁸⁾, 번역 지원 사업 또한 한국의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국가 주도 정책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국의 전형적인 이미지에 대한 바깥에서의 요구에 한국문학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자기 타자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냉정한 현실을 반영한다.

2) 2000년대 한국문학 번역 출판 현황 분석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1999년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 계간지 『PO&SIE』가 88호에 한국시 특집호를 마련하여 잡지 전체를 한국현대시로 구성한 것은, 한국문학 번역사에서도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만하다.²⁹⁾ 어떤 외부의 지원이나 행정적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시에 대한 프랑스 문학계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관심으로 인해 기획된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당시 잡지의 부편집장으로서 기획을 주도하였던 클로드 무샤르(Claude Mouchard)³⁰⁾는 파리 8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제자들로부터 한국시를 번역 텍스트로 접하고 그 독특한 매력과 가능성에 빠졌다고 술회한다.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한 번역 작업을 통해 그는 12명의 한국시인에 대한 번역 작품과 그들에 대한 소개글을 『PO&SIE』에 게재한다.³¹⁾ 이때 무샤르가 쓴 「바

28) 가령 1990년대 한국문학 번역을 선도했던 '악트 쉬드'의 총서 목록 25종 가운데 22종이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등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자체적인 물적 자원과 토대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3종의 출판물은 모두 소설가 최윤의 작품이었는데, 이는 번역자이자 기획자로 참여했던 저자의 위치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악트 쉬드' 총서 지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는 정우경·이가은, 「한국문학 프랑스어 번역출판 연구(1) - 악트 쉬드(Actes Sud) '한국문학총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71집, 상허학회 2024.

29) 『PO&SIE』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인 미셸 드기(Michel Deguy)이 1977년에 창간한 프랑스 시단을 대표하는 시 전문 계간지이다.

30) 당시에 대한 회고와 그 이후 한국문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클로드 무샤르, 『다른 생의 피부-오를 레앙, 파리, 서울 그리고 시』, 구모덕 옮김, 문학과지성사, 2023.

31) 『PO&SIE』 88호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12명의 시인은 이상, 김춘수, 고은, 황동규, 정현종, 이승훈,

람의 녀」이라는 제목의 권두언에서 엿보이는 한국시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여러모로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소개된 텍스트의 다양성, 독창성,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빛을 통해 독자들이 한국시 전체를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쓴다.

대부분의 프랑스 독자들에게 한국은 먼 나라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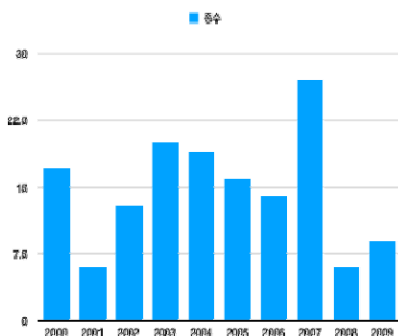
그러나 금세기의 극적인 역사 속에서, 즉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을 통해 전 세계가 이미 한국에 관여했는지도 모른다.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한국의 극적이고, 방대한 역사적 사건은 분명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와 존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문학에 어찌 그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겠는가?

(중략) 그러나 파트릭 모뤼스는 문학에 대한 ‘기계론적’ 역사 환원주의를 거부하면서, 한국 전쟁이 아니라 한국의 작가들이 ‘기억과 함께’ 일으킨 ‘전쟁’을 환기시킨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식민주의, 독재, 분단, 자국어의 출현, 도시화와 농촌 이주의 폭발, 전통적인 사회 및 가족의 해체, 근대 출판의 영향에 직면해야 했던 한국의 작가들에게 현대와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 예술과 문화, 그리고 전통의 발견 등의 다양한 주제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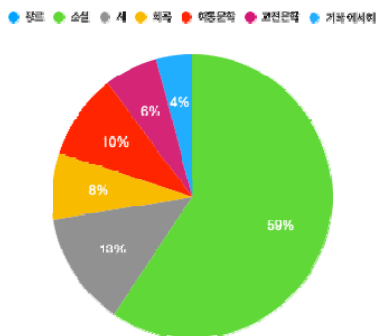
이러한 요소는 시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이제 막을 내린 20세기의 시간 동안 한국에 영향을 끼친 극심한 격변과 폭력에 대해 한국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중략) 여기서 읽게 될 한국현대시는 확실히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며 강력하다. 놀랍게도 서양 독자와 그들의 시대적 기준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50년 차이로 태어나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두 시인 이상과 기형도에게서 우리는 다른 현대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함’을 발견한다. 남진우는 로트레아몽을 언급하기도 한다. 때때로 이상의 시를 읽다 보면 프랑스 독자들은 앙리 미쇼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물론 앙리 미쇼는 이상 보다 후대에 활동한 시인이긴 하지만 말이다.³²⁾

조정권, 이성복, 최승호, 송찬호, 남진우, 기형도이다. 각 시인에 대한 짧은 소개글과 함께 10편 내외의 시와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

클로드 무샤르의 권두언이 특별하게 읽히는 이유는 그가 프랑스 독자들의 한국과 한국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을 고려하면서도, 한국문학 자체의 자율적이고도 독립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남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현대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문학이 어떻게 현대성을 탐구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하는 가운데, 그간 한국문학을 이해하는 데 통용되었던 단순한 기계론적 역사 환원주의를 거부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서양 독자들의 기준’으로도 한국현대시가 충분히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며 강력하다”는 그의 평가는 당시로서는 이색적이고 파격적인 것이었다. 이상과 앙리 미쇼를 견주는 가운데 다른 현대문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현대시의 ‘냉혹함’의 미학에 주목하는 무샤르의 시각은, 한국문학의 동시대적 보편성과 특수성이 세계문학의 시각에서 점차 인식되기 시작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PO&SIE』의 한국시 특집호는 한국문학이 바야흐로 오리엔탈리즘 시각과 결부된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의 이미지로부터 점차 탈피하여, 세계문학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계기가 확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2000년대 년도별 출판 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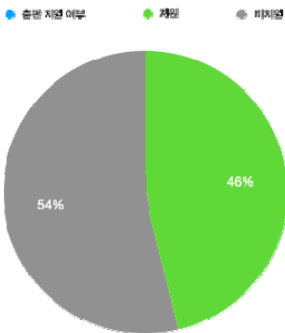


〈2000년대 장르별 출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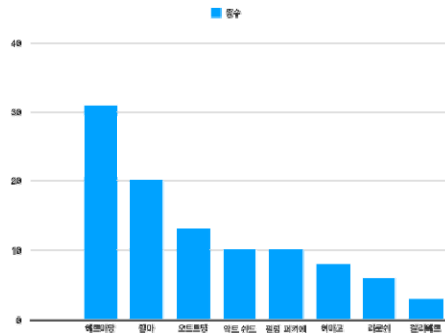
32) Claude Mouchard, “L’âme du vent”(바람의 뉘), *PO&SIE: Poési sud-Coréenne*, no. 88, 1999, Belin, 5~8쪽.

2000년대는 이처럼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한국’문학에서 점차 한국‘문학’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시기로 평가될 수 있다. 2000년대 한국 문학에 대한 번역이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번역 텍스트의 장르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더욱 진일보 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거기에 있다.

통계치에서 살펴볼 수 있듯, 1990년대 80종에 불과했던 번역 작품이 2000년대에는 145종으로 80% 가까이 크게 증가한다. 소설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총 86종)이 크다는 것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눈에 띄지 않았던 아동문학의 번역 출간 종수가 14종을 기록하는 등 장르적으로 더욱 다양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눈에 띄는 것은 작가군들의 세대가 더욱 젊어졌다는 점이다. 김영하, 은희경, 신경숙, 이승우, 전경린, 천명관 등 1990년대에 작품 활동을 시작하며 동시대 한국문학의 흐름과 트렌드를 이끌었던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프랑스 출판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소수의 출판사에게 편중되었던 번역 출판이 보다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변화 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국내 기관들의 지원 없이 자체적 판단에 의거해 독립적으로 번역 출판을 시도하는 사례도 급증했다는 것도 특징적인 현상이다.



〈2000년대 번역출판 지원 현황〉



〈2000년대 주요 출판사 번역 종수〉

〈2000년대 주요 작가 번역 현황〉

작가	조정래	황석영	김영하	은희경	이강백	고은	김진경	오정희	이상	이승우	이청준
종수	21 ³³⁾	8	4	4	4	3	3	3	3	3	3

악트 쉬드(Actes Sud), 아르마탕(L'Harmattan) 필립 피키에(Philippe Picquier)가 번역의 60%를 차지했던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에 이르면 이들의 비중은 35%로 축소되기에 이른다. 한국문학 번역의 초창기를 선도했던 세 출판사가 2000년대에 번역되었던 종수는 51종으로 기존과 크게 줄지 않았지만, 새롭게 번역 출판에 진출한 출판사가 그만큼 증가한 결과이다. 한편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국내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출판 기획을 한 비중이 54%(78종)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출판물로서 한국문학 작품이 가진 문학적 잠재력과 시장에서의 매력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프랑스 출판계 내부에서도 늘어났음을 방증한다.

한국문학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프랑스 문학계의 새로운 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 쥘마(Zulma)에서 발간된 이승우의 장편소설 『L'Envers de la vie(생의 이면)』이다. 해당 작품은 프랑스의 <르 몽드> 등 주요 신문들에 의해 문화면의 특집 기사로 소개되었다는 사실이 국내에도 전해져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생의 이면』은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페미나상(Prix Femina) 외국소설 부문의 최종 후보로 거론되면서도 작지 않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프랑스어로 번역된 소수의 한국 작가들은 한국문학에 대한 보다 흥미로운 인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생생하고도 풍부한 문학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문학이 해외 문학으로부터의 영향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무분별한 해외의 유행으로부터 자신의 문학을 지키는 방법을 안다는 사

33) 조정래의 번역 작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그의 대표작인 대하소설 『태백산맥』(10권)과 『아리랑』(1권 제외 11권)이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두 작품 모두 아르마탕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실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좀처럼 이국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의 인물들은 우리로부터 먼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주변과 매우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승우의 장편소설이 그 분명한 사례이다. 『생의 이면』의 능숙한 구성을 통해 전달되는 낭만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서 동시에 글쓰기와 세계에 대한 작가 자신의 소신을 보여준다. (중략) 예술가는 어떤 열정과 정열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거리를 취해야 한다. 오직 작품이 중요하다. 이승우에게도 중요한 수단은 정치가 아니다. 그가 글을 쓰는 이유는 ‘현실을 전시하기’(exhibitionnisme)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altérer la réalité)라고 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이승우는 세계에 대한 예술의 우위를 주장하는 작가의 계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때로 다소 격렬하고 때로는 다소 웅변적이긴 하지만, 본격 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이처럼 애ত함과 신실함 속에서 씌어진 감성적이고 진지한 소설은 분명 흥미로운 것이다.³⁴⁾

『생의 이면』에 대한 리뷰 기사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프랑스 독서계의 달라진 시선이다. 한국문학이 “좀처럼 이국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는 사실상 프랑스 문학계가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자기 반영적 시선으로도 읽힐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국성에 대한 흥미 대신 “오직 작품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한국문학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와 환경이 프랑스 내부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 문학을 애호하는 독자들에게도 이승우의 작품이 매력적일 수 있으리라 하는 평가는, (비록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한국문학의 동시대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인정의 가능성이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당대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어 황석영, 신경숙, 오정희 등의 번역작들이 프랑스에서 받은 주목과 관심은, 이승우의 작품에 대한 호평이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나갔다.³⁵⁾ 이른바 2000년대에 이르러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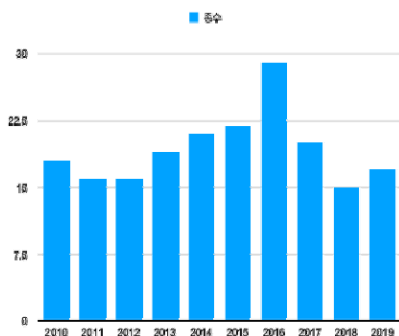
34) Jean Soublin, “Conte cruel de Corée”(한국의 잔인한 이야기), 《Le Monde》, 2000년 5월 19일.

35) 이승우에 이어 황석영의 『손님』(L'Invité, Zulma, 2004)이 페미니상 외국어소설 부문 후보에 오르고, 신경숙의 『외딴 방』(La Chambre Solitaire, Éditions Picquier, 2008)이 2009년 ‘주목받지 못한 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2006년 쾰마에서 출간된 이승우의 『식물들의 사생활』(La Vie Rev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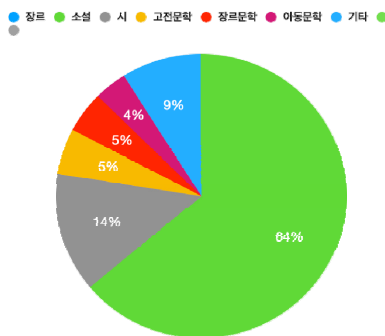
의 젊은 세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출판 트렌드에 의해, 한국문학이 세계문학과의 동시대성과 호흡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4.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 번역 출판과 장-클로드 드크레센조의 한국학

2010년대는 프랑스에서의 한국문학 번역과 연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시기로 평가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오던 한국문학 번역이 제도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이자, 시장에서의 판매나 해외 평단으로부터의 평가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010년대 이후의 통계치는 문학 작품으로서 한국문학을 대하는 프랑스 출판계의 기대 지평이 과거에 비해 한층 입체적이고 다양해졌음을 확인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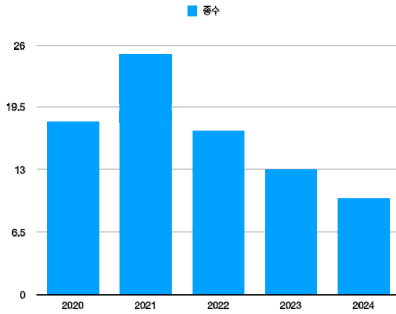


〈2010년대 년도별 출판 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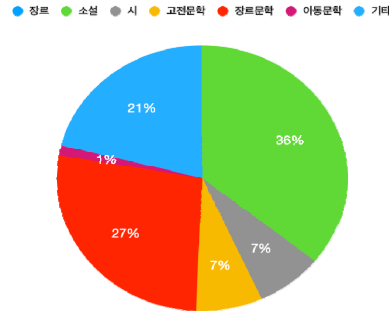


〈2010년대 장르별 출판 비중〉

des Plantes)이 2009년 한국문학작품으로는 최초로 프랑스 최고의 명문 출판사 갈리마르사의 폴리오(Folio) 포켓판 시리즈로 재출간되는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020년대 연도별 출판 종수〉



〈2020년대 장르별 출판 비중〉

〈2010년대 주요 작가 번역 현황〉³⁶⁾

작가	한강	황석영	이승우	김애란	김영하	편혜영	김중혁	김언수	김혜순	신경숙	정유정
종수	9	8	7	6	6	6	5	5	4	4	4

2010년대 출간된 한국문학 번역 작품은 총 193종으로 전년대에 비해 약 33% 증가하였으며, 작가군에 있어서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 두각을 드러낸 김애란, 김중혁, 김언수, 편혜영, 정유정, 한강 등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공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했으며, 출판 작품의 원 출판년도와 번역 출판년도 사이의 시간적 격차도 비약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프랑스 출판계의 관심이 2000년대 이후의 동시대 문학 쪽으로 명확히 이동해가는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눈에 띄는 통계 수치 중 하나는 2020년대에 이르러 SF, 미스터리, 스릴러 등의 장르문학 계열의 약진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현상은 전 세계적인 K-Pop의 유행 및 해외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K-드라마, 영화의 급부상으로 인해 한국산 내러티브에 대한 시장적 수요의 비약적 급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비록 본격 문학 중심의 성장은 아니지만, 한국형 서사에 대한 출판계의 새로운 수요는 기관의 지원에 많은 부분 의존했던

36) 해당 통계치는 단독 저서에만 한하며, 단편 선집 등 산정에서 제외했다.

한국문학 번역출판이 점차 해외 출판 시장에서 판단하는 시장적 잠재력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호소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2010년대 이후 프랑스 출판계에서 한국문학이 그 동시대적 잠재력을 선보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장-클로드 드크레센조(Jean-Claude De Crescenzo) 교수의 활동에 주목해 볼 수 있다. 한국문학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이력 탓인지 스스로를 한국학자 대신 프랑스에 한국문학을 알리는 매개자로 자칭하지만,³⁷⁾ 풍부한 인문학적 식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가 보여주었던 번역자, 비평가, 교육자, 나아가 출판 기획자로서의 전방위적 활동은 프랑스 내 한국문학 번역·연구의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다.

드크레센조는 1952년생으로 프랑스의 남부 도시 마르세유에서 태어나 릴 3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과학 분야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프로방스 대학(엑스-마르세유 대학의 전신)에서 국제협상 마스터(Master de Négociation Internationale) 과정 학과장(Directeur)을 역임하던 2000년대 초 한국학 전공 수업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한다.³⁸⁾ 2003년 프로방스 대학에 한국학 전공 수업을 개설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은 언어학 전공의 김혜경 박사(드크레센조 교수의 부인이자 현 엑스-마르세유 대학 한국학과 주임교수)를 한국어 강사로 초빙한 것이 엑스-마르세유 대학에서의 한국학의 사실상의 기원인 셈이다. 이후 2009년 한국학 전공이 아시아학과에 편입되면서 인문사회과학 전공학생들

37) “한국문학 연구가 드크레센조, ‘빛을 향한 여정’을 담다”, 《독서신문》, 2024년 2월 3일.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31>)

38) 사회학이 주 전공이었던 드크레센조가 한국과 한국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경위는 예상보다 소박하고 우연적이다. 당시 그가 매료되어 있었던 중국무술의 교수자가 한국인이었는데, 그와의 만남을 통해 사회학자로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승우, 이인성 등 1990~2000년대 초에 번역된 한국문학작품과의 만남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전문적인 문학 교육과 연구의 경험이 없는 드크레센조였지만 인문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양과 식견을 바탕으로 해당 작가들에 대한 인상적인 비평 연구를 수행중이다. 그의 회고에 대해서는 장-클로드 드크레센조·정우경, 『프로방스의 ‘작은 한국’』, 엑스의 한국문학 연구와 출판, 『상허학보』 69집, 상허학회, 2023.

을 대상으로 한국어가 교양 외국어, 한국문화가 교양 선택과목으로 채택되고 한국학(언어 및 문화)이 부전공으로 편입된 끝에, 마침내 대학 학위(DU) 과정에 한국학이 개설되었다. 이후 2011년 첫 한국학 전공 교수직(maître de conférences)으로 김혜경 박사가 임용되었고 2012년 3개 언어 전공학사(LLCER Trilangue) 과정에 한국학이, 그리고 2018년 실용언어학과(LEA) 학사과정에 한국학이 개설되면서 총 75명의 학부 정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드크레센조는 2019년 정년퇴임 때까지 한국학 주임 교수로서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대학 내 한국학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드크레센조 교수가 대학 내에서 벌였던 활동도 중요하지만, 한국학자로서 그가 추진했던 한국문학 소개 및 번역 출판 기획은 더욱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프랑스 문학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을 알리기 위한 플랫폼으로 웹진 ‘글마당’(keulmadang)을 출범시켰는데, 2009년 6월에 첫 글이 게시된 이래로 현재까지 한국문학·문화·역사와 관련된 글이 총 672편이 등록되어 있다. 김애란, 윤이형, 윤성희, 천운영, 강영숙 등 아직 프랑스어로 번역되지 않은 젊은 작가들의 낯선 작품에 대한 리뷰를 번역·게재하면서 출범한 웹진 ‘글마당’은 이후 이청준, 박완서, 김훈, 이승우 등 프랑스에서 출판되었던 한국 작가들에 대한 소개와 리뷰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이후 드크레센조가 교수가 본격적으로 번역 출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웹진만으로는 한국문학을 소개하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009년부터 한국문학 전문 출판사를 위한 준비와 모색에 들어가는데, 2011년 프랑스 내 주요 한국문학 번역자와 연구자 그리고 한국의 비평가와 작가들(권오룡, 김혜순, 이인성, 정명교 등)의 도움에 힘입어 드크레센조 출판사(Decrescenzo éditeurs)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 김중혁의 『La bibliothèque des instruments de musique』(악기들의 도서관)과 김애란의 『Cours papa, cours...』(달려라 아비)를 번역·출판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이자 출판인의 길을 걷게 된다. 두 작품 중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는 드크레센조가 김혜경 교수와 공동으

로 번역한 작품이며, 그 후속작으로 2014년 번역에 참여한 『Ma vie dans la supérette』(나는 편의점에 간다)는 ‘주목받지 못한 상’(Le prix de l'inaperçu)을 수상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김사과, 박민규, 한유주, 이승우 등의 작품을 번역하며, 드크레센조 출판사가 프랑스 내 한국문학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기획을 총괄·운영하였다.

드크레센조 출판사의 설립 이후(2012년)의 주요 통계치를 살펴보면 해당 출판사가 프랑스 한국문학 출판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 중요성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번역된 총 242종의 한국문학 단행본 가운데 21.5%에 해당하는 53종이 드크레센조 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는데, 이는 단일 출판사로서는 압도적인 비중에 해당한다.³⁹⁾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년도별 출판 현황〉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종수	2	7	6	8	7	8	2	2	2	1	2	2	4

〈원작 출판년대 종수〉

원작 출판년대	202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기타
종수	20	23	2	4

〈장르별 출판 종수〉

장르	소설	시	고전 문학	장르 문학	아동 문학	기타
종수	40	3	1	5	1	3

〈주요 작가 번역 현황〉

저자	김중혁	김애란	이승우	김사과	김초엽	이인성	장강명	정영문	편혜영
종수	4	4	3	2	2	2	2	2	2

드크레센조 출판사에서 출판된 한국문학 작품과 작가의 리스트를 살펴보

39) 그 외에 주요 출판사는 필립 피키에(31종), 마탱 캄(19종), 아틀리에 데 카이에(18종), 이마고(11종) 등이다.

면, 타 출판사와 비교했을 때 드크레센조가 출판사가 취하고 있는 출판 방향과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특색을 확인해볼 수 있다.

드크레센조 출판사는 한국문학 가운데 철저히 2000년대 이후 출간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번역 출판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문학계의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뜻한다. 거의 대부분의 목록들이 2000년대 이후 출간된 작품들이었으며, (고전문학 등의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 원작과 번역작 사이의 출판년도 차이는 평균 8.4년에 불과했다. 단독저서 49종 가운데 원작과의 출판 시차가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작품이 총 23종에 달할 만큼 동시대 한국작가 가운데 두각을 드러내는 작품을 발 빠르게 프랑스에 소개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현재 한국 차세대 SF 작가로 발돋움한 김초엽의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2021)이 2023년, 그리고 김애란의 『비행운』(2012)이 2015년에 발간되는 등, 번역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출간되는 동시에 번역 작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혜순, 한강, 김애란, 김중혁 등 프랑스에 처음으로 번역된 작가들의 수도 16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과감하고 공격적인 출판 전략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⁴⁰⁾ 이러한 출판 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동시대 한국문학의 흐름과 동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엑스-마르세유 대학을 중심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 도서전 등을 운영하며 한국 문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드크레센조 출판사 번역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 한국의 본격 문학에 속한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프랑스에서도 전통적인 문학 독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여파로 인해 프랑스 내 중소 출판사가 사라지고 출판사 간 합병이 본격화 되는 등 문학 출판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가

40) 드크레센조 출판사에 의해 처음 소개된 작가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사과, 김애란, 김중혁, 김혜순, 도종환, 박민규, 도종환, 박범신, 이현수, 장용민, 정명섭, 정영문, 정유정, 정한아, 한강, 한유주. 자세한 서지 사항은 논문의 <부록>으로 제시한다.

속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격 한국문학의 출판에 집중하는 행보는 타 출판사와 분명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드크레센조는 최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드크레센조 출판사를 제외한 프랑스의 출판사들은 상업성을 기준으로 소설을 출판합니다. 그러다보니 선택된 책들이 한국문학을 대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드크레센조 출판사는 강한 상업적 잠재력을 가진 작가의 작품과 상업적인 잠재력은 약하지만 한국문학의 이미지를 폭넓게 제시하는 데 중요해 보이는 작가의 작품을 함께 출판하며, 한국 문학의 가장 구체적이고 완전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⁴¹⁾

상업성 보다 ‘한국문학의 이미지를 폭넓게 제시하는’ 저작을 우선시한다는 그의 신념은 출판 목록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드크레센조의 출판물 가운데 장르문학에 해당하는 책은 5종에 그치는데, 최근 들어 장르문학 등에 대한 번역 수요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본격 문학의 비중에 비견될 만큼의 경향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낮은 비중은 분명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 문학’ 중심의 출판 기획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처럼, 프랑스 출판 시장의 상업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에도 ‘문학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었던 덕분이다.⁴²⁾

그런가 하면 드크레센조의 동시대 한국문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장르별 출판 현황이다. 드크레센조 출판사에서는 현재까지 장편소설이 28종, 단편소설이 16종, 단편 앤솔로지가 4종, 시집 3종, 비평서 3종, 고전소설 1종이 발간되었는데, 대부분의 단편소설집(13종)이 출

41) 장 클로드 드크레센조 · 정우경, 「프로방스의 ‘작은 한국’, 엑스의 한국문학 연구와 출판」, 『상허학보』 69집, 상허학회, 2023, 532쪽.

42)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프랑스에도 한국에도 많은 이야기책이 있어요.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잊어버리게 되는 책들이요. (중략)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성이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 깊은 곳에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변화를 경험해야 해요. 덮고 나서 3분 후면 잊게 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위의 글, 533쪽.

판사가 정착하는 초기 3년(2012~2015년)에 집중적으로 발간되었다. 한국 문학 전문 출판사로 안착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에서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단편소설들을 선택해 출판한 반면, 어느 정도의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철저히 장편소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단편소설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문학계의 특성과 장편소설(roman) 중심의 프랑스 출판계 사이의 차이를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⁴³⁾ 그 과정에서 ‘단편’이라는 한국적 서사 장르를 프랑스 독자들에게 좀더 용이하게 소개하기 위해 ‘nouvelle’이나 ‘récit’ 등과 같은 고전적인 장르명 대신 micro-fiction이라는 새로운 장르명을 붙였다는 것도 이색적이다. 프랑스 문학 독자 입장에서 roman에 비해 분량이 짧고, 서구식 단편(nouvelle, récit)에 비해 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 단편소설의 독특한 장르적 특수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런가 하면 드크레센조 출판사의 발전에 참여했던 필자 및 번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드크레센조가 프랑스 학계에서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번역 출판과 학술 연구 사이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엑스-마르세유 대학의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한 인적 자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드크레센조 본인과 김혜경 교수를 포함하여, 다수의 한국문학 저작을 번역한 루시 앙게방(Lucie Angheben)이 엑스-마르세유 대학에서 한국의 1980년대생 작가들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아울러 2000년대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로 엑스-마르세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로리 갈리(Lauri Galli-Ragueneau)가 드크레센조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한국문학 종이 잡지 『Keulmadang』의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 줄리앵 파올루치(Julien Paolucci), 베로니크 카발라스카(Véronique Cavallasca) 등의 번역가 역시 잡지의 편집위원으

43) 이러한 단편중심의 역사는 한국소설이 해외 시장에서 출판될 때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최미경, 「프랑스에서의 한국문학: 무엇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프랑스학연구』 62호, 프랑스학회, 2012, 정은진, 「한국소설의 프랑스 수용의 문제: 소설의 장·단편 카테고리 중심으로」, 비교문학 80호, 한국비교문학회, 2020.

로 참여하고 있다. 이중 눈에 띄는 인물은 드크레센조 출판사의 주요 번역가 중 한 사람인 장 벨맹-노엘 교수이다. 파리 8대학 문학교수이자 프랑스 정신 분석 문학비평의 세계적인 대가이기도 한 장 벨맹-노엘은 자신이 번역한 작품들(정영문, 은희경, 박범신, 최제훈, 이인성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 논문과 비평을 프랑스 학계에서 발표하기도 했으며, 2010년 프랑스의 권위 있는 문학 월간지 『Europe』 2010년 5월호의 ‘한국문학 특집’을 기획한 인물이기도 하다.⁴⁴⁾ 번역을 통해 한국문학을 접한 그는 특유의 치밀하고도 세밀한 정신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다수의 한국 작품들을 분석한 비평서를 한국에 출간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한국문학 번역과 학술적 연구 사이의 선순환 구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⁴⁵⁾

드크레센조가 구축한 번역과 연구 사이의 연계성은 2014년 창간된 한국 문학 종이 잡지 『Keulmadang』(글마당)에서도 두각을 드러낸다. 현재까지 총 6개의 호가 발간된 종이 잡지 『Keulmadang』은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비평들이 프랑스어로 게재되어 있다.⁴⁶⁾ 『Keulmadang』에서는 각 호별로 한국문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들로 잡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드크레센조 본인을 포함하여 장 벨맹-노엘, 뤼시 앙게방, 클로드 무샤르, 앙트완 코폴라, 로리 갈리, 줄리엔 파올루치 등 출판사의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다양한 번역가들이 필진을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드크레센조 출판사가 전개하고 있는 번역 출판 - 종이 잡지의 상호 순환 관계는 프랑스 내 한국문학 연구의 심화·확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기획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번역 인력의 후속 세대 양성에도 큰 기여

44) 『Europe』은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에 의해 1923년에 창간된 문학비평 잡지이다. 2010년 5월호 한국문학 특집 코너를 기획한 장 벨맹-노엘 교수는 “Actualité du roman en Corée du Sud”(한국 소설의 현재성)이라는 제목의 발문을 발표하였고, 정이현, 김연수, 이승우, 김경옥, 편혜영, 한유주, 이인성의 소설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45) 장 벨맹-노엘, 『충격과 교감: 한 프랑스 비평가의 한국문학 읽기』, 최애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0.

46) 『Keulmadang』에 실려 있는 글들은 오늘날 한국문학과 문화가 프랑스 지식인들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번역자, 출판기획자, 교육자로서 드크레센조 교수가 보여준 활동은 한국문학 번역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 한국 현대문학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물론 그 스스로가 밝힌 바 있듯, 프랑스 출판계 안에서 한국문학이 외국문학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⁴⁷⁾ 그러나 드크레센조가 프랑스 내에서 한국문학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벌여온 전방위적 활동, 특히 번역·출판·연구가 결합된 체계적인 시스템은 향후 프랑스 한국문학 연구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참조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5. 나가며 : 다시, 타자로서의 한국문학

드크레센조가 출판 기획자로서 수행해온 다양한 활동들은 프랑스로 대변되는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장이 보여준 적극적 소통의 모범 사례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문학 연구자로서 그가 개인적으로 이론 업적 역시 놀랄 만한 것이었다. 현재까지 그는 8종의 한국문학 번역 작업에 참여하였으며⁴⁸⁾ 2권의 한국문학 연구 비평서를 프랑스어로 펴냈는데,⁴⁹⁾ 이 같은 성취

47)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프랑스에서 바라본 한국문학의 전망」, 이소영 옮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국내학술대회 <한국어문학의 미래> 자료집》, 2024.

48) 그가 번역해 출판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중혁, 『La bibliothèque des instruments de musique(악기들의 도서관)』(2012), 김애란, 『Cours papa, cours...(달려라, 아비)』(2012), 김사과, 『Mina(미나)』(2013), 김애란, 『Ma vie dans la supérette(나는 편의점에 간다)』(2013), 박민규,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2014), 정명교, 『Un désir de littérature coréenne(문학이라는 것의 욕망)』(2015), 한유주, 『Un impossible conte de fées(불가능한 동화)』(2017), 이승우, 『Le Chant de la terre(지상의 노래)』(2017), 권정생, 『Ma soeur Mongsil(몽실 언니)』(2021), 이승우, 『Voyage à Cantant(강탕)』(2022), 도종환, 『Nulle fleur n'éclot sans trembler(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2024).

49) 『Écrits de l'intérieur: le monde littéraire de Lee Seung-u(내면의 글쓰기 : 이승우의 문학)』(Decrescenzo éditeurs, 2022), 『Promenades dans la littérature coréenne(한국문학을 산책하기)』(Decrescenzo éditeurs, 2023) 드크레센조의 단독 저서는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다나아 데스의 물통 - 이승우의 작품 세계』(문학과지성사, 2020), 『프로방스 숲에서 만난 한국문학』(문

를 인정받아 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2023 한국문학번역대상, 2023 창원KC국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그렇다면 드크레센조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한국문학을 프랑스에 알리려 노력했던 번역가와 연구자들에게 한국의 문학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프랑스 문학이라는 타자에게 유의미하게 수용되는 한국문학의 문학적 보편성과 특수성은 무엇일까? 과연 프랑스의 지적 환경에서 생성되는 한국에 관한 문학적 담론은 우리의 그것과 어떤 차별성을 지닐까? 이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드크레센조를 비롯한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비평·연구 텍스트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한국문학 번역·연구의 현황을 개괄하는 본 글에서는 전반적인 변화의 추세와 흐름을 조망하는 것에 만족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향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나아가 외국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연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참조할 수 있을만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08년 한국을 방문한 장 벨맹-노엘 교수는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이 주최한 학술 강좌의 연사로 참석한 바 있다. 당시 그에게 주어진 강연 주제는 ‘프랑스 비평가의 눈에 비친 한국문학’이었는데, 주최 측의 의도는 세계문학의 중심에서 온 이 저명한 문학연구자라는 예외적인 존재로부터 한국문학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한국문학의 오랜 염원인 세계문학의 중심으로의 진입이 가능할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청중들을 향해, 장 벨맹-노엘은 다소 엉뚱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대답을 내놓는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한국문학 소설 작품들이 지니는 독창적인 면모, 타성으로 무감각해진 한 유럽인을 매혹시킬 수 있을 이국적 정취, 그런 것 말

이다. 하지만 나는 주로 나 자신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즉 나는 일반적으로 문학 속에서, 그리고 특히 외국문학, 지금의 경우에는 한국문학 속에서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중략) 요컨대, 나는 지금까지 다른 어떤 문학도 내게 가져다준 적이 없는 것을 제공해주기를 여러분의 문학에 요청한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이해했듯이, 내가 문학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나 자신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글을 쓰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부추기는 무언가를 문학이 내게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언제나 나 자신의 더 많은 것을, 동시에 ‘나’와 내 내면의 ‘타자’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⁵⁰⁾

외국에서 온 낯선 문학연구자에게 자국의 문학에 관한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청중들로부터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어법을 빌리자면) 프랑스라는 문학적 대타자를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는 주체의 욕망을 감지할 수 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라캉의 지적처럼, 타자로부터 욕망의 대상이 되길 바라는 주체의 욕망은, 자신의 욕망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승인받으려는 태도와 그리 다른 것이 아니다. 이때 타자에 대한 욕망은 타자를 욕망하는 주체 자신에 대한 욕망과 엄밀하게 구별될 수 없는데, 이를 간과할 때 타자에 대한 ‘앎에의 의지’(미셸 푸코)에 수반되는 욕망의 변증법과 권력의 간계가 사유될 수 없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대가답게 장 벨맹-노엘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강연의 서두에서 그는 “한국문학 소설 작품들이 지니는 독창적인 면모”나 “유럽인을 매혹시킬 수 있을 이국적 정취” 등의 예상되는 답변을 기대하는 청중들의 기대를 노골적으로 배반한다. 그는 한국문학이라는 타자에 관해 말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 관해, 그리고 스스로의 욕망 (“한국문학 속에서 내가 찾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전제한다. 한국문학이라는 타자에 관해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문학이라는 타자

50) 장 벨맹-노엘, 『충격과 교감: 한 프랑스 비평가의 한국문학 읽기』, 최애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0, 15~26쪽.

에 관해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기일 수밖에 없음을 그는 분명하게 주지시키는 중이다. 즉, 타자에 대한 앎을 문제시하는 것은 결국 타자에 직면하고 있는 주체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며, 결국 우리가 탐문해야 하는 것은 타자 그 자체가 아니라 타자라는 환상 속에서 주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이다. 이것이 간과될 때 주체와 타자를 구분하고, 모종의 담론적 위계를 낳는 자기동일적 욕망의 권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다른 어떤 문학도 내게 가져다준 적이 없는 것을 제공해주기를 여러분의 문학에 요청한다”는 그의 발화는 한국문학을 향한 주문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요청에 가까워 보인다. 욕망의 변증법에 따르면 ‘어떤 문학도 내게 가져다준 적이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외부의 타자가 아니라 실상 자기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문학은 그에게 일종의 낯선 거울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자기 동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타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흥미로운 타자적 거울이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장 벨맹-노엘의 시각은 오늘날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관계를 성찰하고, 나아가 해외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국문학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탐구하는 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세계문학 속 한국문학의 현실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결국 한국문학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 의지 및 욕망과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건은 단순히 한국문학의 제고된 위상을 재확인하고, 타자로부터의 상징적 인준을 얻으려는 자기동일적 욕망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타자에 의해 말해진 한국문학을 청취하려는 노력은 결국 한국문학장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재발견하고 그것과 대면하는 과정과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나 자신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나아가 한국문학의 알려지지 않는 내적 타자의 얼굴을 발견하기 위한 거울로서 해외 한국문학연구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세계문학계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한국문학의 동시대성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문학의 동시대성은 서구적 보편성이나 한국적

특수성으로 온전히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상호 대화의 토대, 다시 말해 타자를 거울삼아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결여로서의 타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적 환경을 지시하는 것이다. 과연 ‘타자로서의 한국문학’(해외 한국문학연구)이 우리에게 던지게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지만, 그 과정은 분명 흥미로울 것이다. 이러한 상호 만남을 통해 한국문학 연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낯설고도 예상치 못한 한국문학의 다양한 얼굴들과 다시 대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Le Monde》, 《Libération》, 《경향신문》, 《독서신문》, 『PO&SIE』, 『ERUROPE』, 『Keulmadang』, 한국문
학번역원 디지털도서관(<https://library.itikorea.or.kr>), 프랑스 박사 회위 논문 검색 포털(<https://theses.fr>),
SUDOC(Système Universitaire de Documentation)

2. 논문 및 저서

곽효환, 『한국문학 해외 소개의 현황과 과제: 세계화를 향해 걸어온 긴 여정, 그러나 아직은 먼 길』, 『문예중
앙』 2002년 봄호.

곽효환,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현황과 전망』, 『한국문예창작』 제54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김수영,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03.

김윤식 ·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오정숙, 『프랑스에서 한국문학의 수용과 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프랑스학연구』 29집, 프랑스학
회, 2004.

이장규, 『프랑스 내 한국학 현황과 독립운동사 연구의 활성화 방안』, 『한국근현대사연구』 105집, 2023.

이진명, 『Etudes coréennes en France : les origines, le passé et le présent』, Actes du Séminaire
international coréano-francophone sur la situation géopolitique en Asie de l'Est, les problèmes
territoriaux et la cartographie, 2013.

임은실, 『사회인류학의 눈으로 본 프랑스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 『프랑스학연구』 102집, 프랑스학회,
2023.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Écrits de l'intérieur: le monde littéraire de Lee Seung-u(내면의 글쓰기 : 이승우의
문학』, 2022.

_____, 『Promenades dans la littérature coréenne(한국문학을 산책하기)』, 2023.

_____, 『다나이데스의 물통 - 이승우의 작품 세계』, 문학과지성사, 2020.

_____, 『프로방스 숲에서 만난 한국문학』, 문학과지성사, 2023.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 정우경, 『프로방스의 '작은 한국', 엑스의 한국문학 연구와 출판』, 『상허학보』 69집,
상허학회, 2023.

장 벨맹-노엘, 『충격과 교감: 한 프랑스 비평가의 한국문학 읽기』, 최애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0.

장준영 · 서세림, 『악트 쉬드(Actes Sud) 한국어 문학 총서 발간의 의미: 제도적 번역 지원과 출판사 총괄 기
획의 효과』, 『다문화콘텐츠연구』 43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3.

정규복, 『다니엘 부세의 「구운몽」 저작언어 변증 비판』, 『한국학보』 18권 4호, 일지사, 1992.

정우경 · 이가은, 『한국문학 프랑스어 번역출판 연구(1) - 악트 쉬드(Actes Sud) '한국문학총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71집, 상허학회 2024.

정은진, 『한국소설의 프랑스 수용의 문제: 소설의 장 · 단편 카테고리 중심』, 비교문학 80호, 한국비교
문학회, 2020.

조동일, 『Daniel Bouchez, Tradition, traduction et interpretation d'un roman coreen-le Namjongki』, 『국
어국문학』, 94호, 국어국문학회, 1985.

- 조태린, 「국의 한국학 관련 커리큘럼 분석 - 프랑스 주요 대학의 한국학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3집, 동방학회, 2013.
- 최미경, 「프랑스에서의 한국문학: 무엇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프랑스학연구』 62호, 프랑스학회, 2012.
- 한국국제교류재단 역음, 『2018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18.
- 클로드 무샤르, “L’âme du vent”(바람의 넋) PO&SIE: Poési sud-Coréenne, no.88, Belin, 1999.
- _____, 『다른 생의 피부-오를레앙, 파리, 서울 그리고 시』, 구모덕 옮김, 문학과지성사, 2023.
- Claire Devarrieux, “L’hirondelle du Matin calme”(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제비), 《Libération》, 1995년 11월 30일.
- Florence Galmiche, “Méthodes et thèmes de recherche dans les études coréennes en France : une diversification qui se poursuit?”(프랑스 한국학의 연구방법과 주제 : 다양성은 계속되는가?), Livre blanc des études coréennes en France, Réseau des Études sur la Corée, 2019.
- Jean Soublin, “Conte cruel de Corée”(한국의 잔인한 이야기), 《Le Monde》, 2000년 5월 19일.

〈부록〉 드크레센조 출판사에서 간행된 한국문학 목록

	서명	원작	작가	번역자	출판 시기	원작 출판 년도	원작 발행처	장르
1	La bibliothèque des instruments de musique	악기들의 도서관	김중혁	문소영 외	2012	2008	문학동네	단편소설
2	Cours papa, cours...	달려라, 아비	김애란	김혜경,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2012	2005	창비	단편소설
3	Sept méandres pour une île	강 어귀에 섬 하나	이인성	장 벨맹-노엘 외	2013	1999	문학과지성사	단편소설
4	Qui a tendu un piège dans la pinède par une journée fleurie de printemps ?	누가 꽃피는 봄날 리기다소나무 숲에 뒹을 놓았을까	은희경	장 벨맹-노엘 외	2013	2002	문학과지성사	단편소설
5	Les cerisiers du Japon	꽃나무는 심어 놓고	이태준	김혜련 외	2013	1933	『산동아』	단편소설
6	Mina	미나	김사과	김혜경,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2013	2008	창비	단편소설
7	Pierrot en mal de lune	달에 홀린 광대	정영문	최애영, 장 벨맹-노엘 외	2013	2004	문학동네	단편소설
8	La Voleuse de fraises	딸기 도둑	은희경	장 벨맹-노엘 외	2013	2002	문학과지성사	단편소설
9	Ma vie dans la supérette	나는 편의점에 간다	김애란	김혜경,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2013	2005	창비	단편소설
10	Bus errant	무방향 버스 - 리믹스, 「고아편 뽕덕어멈」	김중혁	문소영 외	2013	2008	문학동네	단편소설
11	Putain de pupitres !	더러운 책상	박범신	장 벨맹-노엘 외	2014	2003	문학동네	장편소설
12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박민규	황지영,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2014	2009	위즈덤하우스	장편소설
13	Zombies, la descente aux enfers	좀비들	김중혁	문소영, 베아트리카 구용	2014	2010	창비	장편소설
14	Le Regard de Midi	한낮의 시선	이승우	최미경, 장-노엘 주테트	2014	2009	자음과모음	장편소설
15	Le Château du Baron de Quirval	퀴르발 남작의 성	최제훈	최애영, 장 벨맹-노엘 외	2015	2010	문학과지성사	단편소설

16	Pars, le vent se lève	바람이 분다, 가라	한강	이태연, 제네비브 로-파우카	2015	2010	문학과지성사	장편소설
17	Comme dans un conte	동화처럼	김경옥	최애영, 장 벨맹-노엘 외	2015	2010	민음사	장편소설
18	Un désir de littérature coréenne	문학이라는 것의 욕망	정명교	김혜경,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외	2015	2005	역락	비평서
19	Comment se passe ton été ?	너의 여름은 어떠니, 『비행운』	김애란	케테 아모루소, 뤼시 앙게방	2015	2012	문학과지성사	단편소설
20	Au Lotus d'or - Histoires de courtisanes	신 기생던	이현수	최애영, 장 벨맹-노엘 외	2015	2005	문학동네	장편소설
21	Poèmes de l'Himalaya	히말라야	고은	노미성, 알랭 주네뜨와	2015	2000	민음사	시집
22	Dans l'antre d'Aoï Garden	아오이가든	편혜영	이정민, 줄리앙 파올루치	2015	2005	문학과지성사	단편소설
23	Corée des villes Corée des champs	한국의 도시들, 한국의 들판들	윤대녕 외	줄리앙 파올루치(편역)	2015			단편 엔솔로지
24	Chanson d'ailleurs	그곳에 밤 여기에 노래, 『비행운』	김애란	케테 아모루소, 뤼시 앙게방	2016	2012	문학과지성사	단편소설
25	Fictions coréennes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외		2016			한국문학 입문서
26	Un verre de miroir rouge	한 잔의 붉은 거울	김혜순	이준우, 루시 앙게방	2016	2004	문학과지성사	시집
27	Saisons d'exil	낯선 시간 속으로	이인성	최애영, 장 벨맹-노엘	2016	1983	문학과지성사	장편소설
28	Les nuits de sept ans	7년의 밤	정유정	권지현, 필립 라세르	2016	2011	은행나무	장편소설
29	Les ombres du lundi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	김중혁	문소영, 마리스 부르맹	2016	2014	문학과지성사	장편소설
30	Nana à l'aube	새벽의 나나	박형서	정현주, 파비앙 바르트코비악	2016	2010	문학과지성사	장편소설
31	Histoires insolites de Corée	한국의 기이한 이야기	권지예 외	김정연, 수잔 살리나스	2016			단편 엔솔로지
32	Un impossible conte de fées	불가능한 동화	한유주	황지영,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2017	2013	문학과지성사	장편소설
33	Le Chant de la terre	지상의 노래	이승우	김혜경,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2017	2012	민음사	장편소설

34	La Remontrance du tigre	호절	박지원	조은라, 스테판 브와	2017			고전소설
35	Au paradis	천국에서	김사과	최애영, 장 벨맹-노엘	2017	2013	창비	장편소설
36	Un monde dénaturé	어떤 작위의 세계	정영문	최애영, 장 벨맹-노엘	2017	2011	문학과지성사	장편소설
37	La forêt de l'Ouest	서쪽 숲에 갔다	편혜영	이정민, 줄리앙 파올루치	2017	2012	문학과지성사	장편소설
38	Un balcon sur la lune	달의 바다	정한아	박미휘, 베로니크 카발라스카	2017	2007	문학동네	장편소설
39	Amours fantômes	유령의 사랑	권여선 외	김정연, 수잔 살리나스	2017			단편 앤솔로지
40	Séoul zone interdite	폐쇄구역 서울	정명섭	황지혜, 줄리앙 파올루치	2018	2012	네오픽션	장편소설
41	L'enfant ultime	궁극의 아이	장용민	서민원, 다니엘 글로리	2018	2013	엘릭시르	장편소설
42	GÉNÉRATION B	표백	장강명	황지혜, 베로니크 카발라스카	2019	2011	한겨레출판	장편소설
43	Cochon sur gazon	풀밭 위의 돼지	김태용	최애영, 장 벨맹-노엘	2020	2007	문학과지성사	단편소설
44	Ma soeur Mongsil	몽실 언니	권정생	박미휘,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2021	1984	창비	아동문학
45	Écrits de l'intérieur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2022			비평 에세이
46	La vieille dame au couteau	파과	구병모	이태연, 베로니크 카발라스카	2022	2013	자음과모음	장편소설
47	VOYAGE À CANTANT	칸탕	이승우	김혜경,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2022	2019	현대문학	장편소설
48	La terre qui erre	떠도는 땅	김숨	최애영, 장 벨맹-노엘	2023	2020	은행나무	장편소설
49	La fabrique d'excuses	사과는 잘해요	이기호	레미 델마스	2023	2009	현대문학	장편소설
50	L'Odeur des clémentines grillées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도우	이소영, 크리스탈 광소나	2023	2018	시공사	장편소설
51	Promenades dans la littérature coréenne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2023			비평

52	La serre du bont du monde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손미혜, 장-피에르 주비아테	2023	2021	자이언트북스	장편소설
53	Qui veut la guerre	우리의 소원은 전쟁	장강명	이태연, 에릭 레클레	2024	2016	위즈덤하우스	장편소설
54	Propriétés physiques du sentiment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손미혜, 장-피에르 주비아테	2024	2019	허블	단편소설
55	Nulle fleur n'éclot sans trembler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이소영,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2024	2007	랜덤하우스 코리아	시집
56	Saigon night	사이공 나이트	정민	이정민, 줄리앙 파올루치	2024	2013	나무옆의자	장편소설

The Translation and Research on Korean Literature in France

Focusing on Jean-Claude DeCrescenzo's work on Korean literature

Kang, Dong-h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n literature studies in France and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status and possibilities of contemporary French Korean studies. The interest of the French intellectual community in Korean literature is important in the history of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abroad. This is because France was one of the key channels through which Korean literature was introduced to the West and a symbolic place that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recognition of Korean literature on a global level.

In fact, the teaching and study of Korean literature in France only began in earnest in the 1990s, relatively late compared to other disciplines. Despite the important role of literature in understanding a country's culture, the 40-year lag compared to other academic fields was due to the language barrier that is inevitably faced when teaching and studying literature.

In this context, the efforts and dedication of Korean scholars abroad are worth reiterating as the foundation for the activ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France is being laid. In particular, the work of Professor Jean-Claude DeCrescenzo in translating and researching Korean literature deserves special attention. He led the translation and research of Korean literature in France in the 2010s, marking a new turning point for Korean

* Inha University

studies abroad at the time. What should be especially emphasized is the fact that Prof. DeCrescenzo's Korean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in all aspects of translation, publication, teaching, research, and planning.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significance of DeCrescenzo's Korean studies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Korean studies in France and to examine how the contemporaneity of Korean literature is perceived toda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rench.

Key words : French Korean Studies, Jean-Claude de Crescenzo, Korean Literature, World Literature, Translation, Contemporaneity